

#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 성산읍 온평리의 경우 —

文 武 秉

##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온평리의 설촌유래
3. 온평리의 신앙
  - (1) 마을 포제
  - (2) 당신앙
4. 신당의 이전과 마을의 설촌

## 1. 문제의 제기

필자는 마을의 신앙과 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본풀이>를 신화로 규정하고 신화와 제의라는 측면에서만 관심을 집중하여 왔던 연구의 방향을 바꾸어 당본풀이를 민중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필자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풀이는 신화이면서 동시에 민중의 역사다.

당본풀이는 마을의 역사이기 때문에 설촌과 관련이 있다.

당의 분리는 마을의 형성과 분리를 설명한다.

고 주장하였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본고는 성산읍 온평리 마을의 당신앙과 설촌유래를 상호 관련 하에 살펴보고, 본풀이와 역사는 관련이 있다. 즉 당본풀이는 신화이면서 동시에 민중의 역사라는 것을 밝혀 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당곳이 단순히 제의적인 목적에서만 치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역사적 삶의 체험들을 당곳을 통하여 보여주어, 마을공동체의 살아있는 문화로 창조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는 당곳의 의미를 제의적 의례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 넓은 문화행위로서 거기에는 마을사람들의 역사의식과 집단적 정서가 공동체의 결속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선행연구는 현용준의 <삼성신화 연구><sup>1)</sup>가 있다. 여기에서 그는 삼성신화가 당본풀이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이는 본풀이가 역사일 수 있다는 점과 온평리의 설촌유래를 다루고 있어, 본고는 이를 보강한다는 점에서 마을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풀이가 마을의 설촌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 보려는 것이다.

## 2. 온평리의 설촌유래

온평리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으며, 마을이 설촌되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마을의 설촌내력을 알만한 두 노인의 말을 우선 듣고, 그로부터 마을의 역사를 더듬어 나가기로 하자.

---

1) 현용준, <삼성신화 연구>, [탐라문화] 2 (탐라문화연구소, 1983)  
pp. 45~91.

##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열운이〉란 것이 옛날 탐라국 때부터 있었다 하여. 옛 어른들에게 들은 말이다. “어찌서 〈열운이〉라고 했고, 언제부터 〈온평리〉라 했습니까?” 하고 들어보면, 〈열운이〉는 〈열혼이〉가 맞다 합니다. “〈열운이〉에서 혼인을 했다” 해서 〈열혼이〉라 하는 겹주. 〈훤죽〉이 혼인을 했던 연못이라고 “혼인못”, 〈훤죽〉이라 하는 겹주. 그러니이 탐라국이 없어져 설란, 제주도가 “섬도(島)자”를 쓸 때부터 아마 〈온평리〉란 이름이 나온 모양이라 마썸.

〈황로알(온평리 바닷가에 있는 지명)〉에서 유물이 발견된 일이 있는데 제주도에 인가가 전혀 없는 때에, 高粱夫 三姓이 무슨 별자리를 보고, -그게 정말인지 거짓 말인지 몰르겠습니다 만, -〈화성개〉라고 해서, 아마 화상이 올라 와, 사람들이 굶어 가니까, 별을 보고 알았단고라(알아내었는지) 온평리 〈황로알〉로 화상(花箱)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서 사냥을 하다가 산에서 내려와 상자를 깨어 보니까, 아기씨(처녀) 세 사람과 무슨 송아지 망아지여 오곡씨여, 농사짓는 도구여 담겨 있어설란, 임시로 우선 〈혼인지〉에 가서, 거기 굴이 있어났수다. 굴이 있는디, 거기서 아마 결혼을 해서 살았는디. 서로가 내가 큰 아들이여, 내가 셋아들이여 하며 다투는데, 하루는 삼형제가 내기를 하여, 먼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걸로 형을 삼자고 하니 夫氏가 먼저 나무꼭지(꼭대기)에 가고 양씨가 가운데 가고, 고씨는 가만히 뿌리에 앉아설란 허니. 부가가 꼭지에 올라서는 “내가 큰 아들이 아니냐?” 허니까, 고씨가 “이놈아 불휘(뿌리) 없는 송이가 있느냐? 불휘는 내가 여기 잡고있지 않았느냐? 내가 큰 아들이고, 너는 말젓아들 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고량부 삼성이엔 해십주. 시방은 모르쿠다. 결혼을 하는지 안하는지, 고량부 삼성끼린 혼인을 안 해십주.

[그런데 고량부 삼신인이 한라산에 올라가서 활을 쏘아서 멀리 나간 것으로 형을 삼자고 해서 고씨가 쏜 화살이 지금 화북에 있는 삼사석이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도 하여. 그 말도 하고, 낭(나무)집 지기 내길을 했다고도 하고, 낭에 오르는 고가가 큰 아들이 되고, 양가가 셋아들이 되고, 부가가 작은 아들이 되었던 허주. 낭에 빨리 올르는 사람으로 하자고 하니까, 부씨는 얼른 올라 뜯는게라. 그 버금에 양씨가 다뤄 올라갈 수 없으니까, 고씨는 가만히 앉았다가, 부씨가 형이라 하니까니, 고씨는 “불휘없는 순(씩)이 있겠냐? 내가 형이 아니냐?”고. (현여정, 남·78세)

〈온평리〉가 처음 생긴 건, 〈열운이〉라고 해서 이디서 저 〈신산이(신산리)〉로 가는 데, 〈목은열운이〉라는데, 그디 오라서 한씨, 문씨, 부씨가 살아났

수다. 처음 오라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디 오란(와서) 심방절도 하고, 똬다가 그디가 개갯디(갯가)는 말쟁헌 빌레(盤石)라. 포구가 없어. 그러니, 이디 와서 포구가 있으니까, 그때 여길 포구로 삼아서 모다저네(모여들어) 현씨, 강씨, 고씨, 부씨가 다 모여들어서 마을이 이루어졌는다.

강씨는 <월계포>라고 저 <돌개>에 살아 났고,

현씨는 저 <다래물>에 살아나고, <다래물 낭저니왓>이엔 허든가……

이씨는 <행주골>, 저 <빈넛골>에 살아났고,

고씨는 <고치ㄴ루>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듣기는 고랑부가 한라산에 사냥 나왔다가 요새 말로, 무시거 비주와서 노려오고 보니까, 결국 초차 초차 오는 것이 <온평리> <황날>이라고 해서, <황날>을 <화성개>라고 합니다. 거기 노려 와 보니까, 꽃상자 세 개가 오라시니까(밀려 와 있으니까) 진저내어 열어보니까, 아기씨가 서어 있고, 거기서 오목씨가 있고 허난, 거기서 혼인지로 올라가서 결혼을 해서 사흘을 머물다가 저 제주시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혼인지도 껌(굴)가 있어 났수다마는 돌을 깨멍 말아붙고, 하나는 저 <서근계 껌버덕>에 있수다마는, 또 그디도 옛날 말을 듣기는 먹는 물통이 있는데, 천연수 받는 그 버덕이 받이 안되어 버덕이니까, <뱃남꽃>이라고. 소남도(소나무도) 좋아났는다. 왜정 때 법 어시난 아무래도 끊어부난, 이젠 "멀쩡허나네, 오름(山)도 엇고 해부난 여길 <멀쩡얼운이>"엔 합니다. 산도 없고, 내가 없고 하니, 평평하다고 해서 <온평리>라고 지웠다고 합니다. 처음엔 <얼운이>라고 하다가, <얼운이>가 <온평리>로 바뀌어진 것은 약 300년 됐주. 인가가 모여지긴 750년~800년 됐주. 여기 인가 모여지긴 천 년 못됐수다.

<온평리>의 형국은 <골채형국>이우다. 계난 외지 사람이 오면 잘돼국 본 리 사람은 부지런허지 않으면 못삽니다. 좌쪽 우쪽으로 내려간 사람은 썩잖으국, 가운데 앉은 사람(항사 있는동네)은 <넛동>이라고 해서, 그계 내(川)우다. 저 난산리 <이나오름>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다 이디 오라났수다. 옛날이사 담도 없고 막지 않을 때난, 그래서 <온평리>를 상·하동 구별했수다. 이쪽은 글로(넛동) 시작해서 웃동네라 하고, 저쪽은 알동네. 질 안되는 데는 중간 부근, 내로 ㄸ서부니까. 지리서의 말도.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면 시방도 영 왼쪽으로 돌아서 저쪽이나 이쪽은 사람들이 지금도 밥을 먹영 잘 살고, 가운데 사람은 아무래도 좀 모자라났수다. 가운데는 풍수지리가 좋지 않다는 겁주. 지관들 말이. 계난 물로 다 ㄸ서부니까, 불지 않는다고 해서.

(장세량, 남·82세)

##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여기에서 우리는 마을의 이름이 <열운이>였고, 지금은 <온평리>가 되었다는 것과, <열운이>는 <열혼이>에서 왔다는 이야기에서 처럼, <삼성신화>와 관련이 된다는 점, 그리고 고량부 삼성이 <열운이>의 포구, <황날 또는 황노알>의 <화성개>에서 꽃상자에 실려 표류해 온 세 처녀를 맞이하여, <흰죽=혼인지못>에서 결혼하여, 굴 속의 생활(혈거생활)을 했다는 점등이 마을의 설촌이 탐라국의 건국과 관련을 맺을 만큼 꽤 고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을의 어떤 이는 1974년에 <화성개> 근처에서 <돌칼>을 발견하였고, 제주대학의 유물 조사팀들은 <혼인지의 궤(籬)>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을 발견하였다는 점과 여몽항쟁기에 만들어 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을 막기 위하여 구축된 것으로 보이는 <환해장성터>가 남아 있고, 또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온평리>의 설촌은 750~800년 전에 文氏와 威氏가 설촌을 하여 세력을 얻고 살다가 몰락한 뒤, 400여년전(1576년경)에 <묵은열운이>, <귤돌>, <다래물>, <진동산>, <돌개> 등에 여러 씨족이 각각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했다는 것과, 그 入郷始祖들이 살던 집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열운이>, 지금의 <온평리>의 설촌유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아무튼 삼성신화와 관련지워 보거나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거나 설촌 이전의 거주설은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열운이>라는 지명이 어원적인 고찰을 통하여 삼국시대의 고어로 된 지명임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온평리 지경 <묵은열운이>에 있는 <토산서편한집>이라는 토산리에서 가지 갈라 온 <뱀당>과 구좌읍 세화리에서 가지 갈라 온 <돌혹당>, 신산리에서 가지 갈라 온 <본향당>과 <돌개>에 모시고 있는 <현씨일월당>과 같이 인근 마을에서부터 가지 갈라 온 당이 있다는 것은,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로 “당은 설촌 조상과 관련이 있고, 자손이 가지 가지 송이 송이 번성하게 되면, 이웃 마을로 가지 갈라 가서, 새로운 마을과 <본향당>이 생기는 것”이므로, 당의 이전과 그 가지당과 본향당과의 관계를 설촌과 관련지워 살필 수도 있을 것이다.

① 설촌 이전의 거주설

〈온평리〉는 이전에 〈열운이〉였고, 〈열운이〉는 그 이전에 〈묵은열운이〉였으며, 〈묵은열운이〉라고 한 것은 〈열운이〉에 사람이 살기 전에 사람이 살았던 〈열운이〉라는 것이다. 이때는 문씨와 함씨가 처음으로 〈묵은열운이〉에 살았으며, 그 때가 750~8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열운이〉의 마을 형성과 관련이 있다면, 그 이전에 사람이 살았던 것은 어느 정도일까? 마을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온평리〉 포구에 있는 〈환해장성〉이 여몽항쟁기의 성터라고 한다면, 성의 규모로 보아, 부역에 필요한 백성들이 상당히 모여 살았을 것이며, 적의 침입을 피하여, 성을 지키는 사람 이외에는 포구와 멀리 떨어진 〈묵은열운이〉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따라서 〈묵은열운이〉는 여몽항쟁기의 〈온평리〉였음을 가정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고려시대 부터의 마을의 역사는 복원되는 셈이다. 그러나 삼성신화는 〈열운이〉의 설촌을 그 이전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한다. 촌로들에게서 수집한 삼성신화의 혼인지 이야기는 〈황노알〉에 표류한 세 여인을 “금관국의 공주”라고 하여 탐라국의 건국신화인 〈벽랑국〉이나, 심방의 본풀이에 나오는 〈주년국(일본)〉이 아니라 〈금관국〉이라 하였다. 〈금관국〉은 김해를 중심으로 발달한 〈본가야〉로 낙동강 하구의 비옥한 충적 평야지대였으며, AD 1세기 경부터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 발달하여, 중국과 왜의 중개무역지 역할을 하였고, 제주도에도 진출하여 중개무역을 하였다.<sup>2)</sup> 이 시대는 철기시대(AD 1~300년)로 국가 형태를 갖추기 이전의 무문토기 시대이므로 온평리 혈거 유적지에서 무문토기의 파편이 발견되는 것은 〈구전신화〉의 내용이 역사적 증거와의 관련을 입증하여,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또 삼성신화는 삼신녀와 결혼하여 탐라국을 세운 뒤, 백제와 신라에 조공무역을 하였다.

따라서 “設村 以前の 居住說”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2) 한국민중사연구회편 : 〈한국민중사〉 1, 풀빛출판사, 1986. pp. 95~98.

② 삼성신화와의 관련설<sup>3)</sup>

삼성신화는 高·梁·夫 三姓의 시조신화인 동시에 탐라국의 개벽신화이다.

삼성신화는 많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설로서도 전승되고 있으며, 심방이 부르는 <본풀이>에서도 삼성신화와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삼성신화를 기록한 역사서들을 살펴보면, 거의가 대동소이하지만, 그러나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살핀다면,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하나는 [고려사]의 기사계통이요, 다른 하나는 [영주지]의 기사계통이다.

\* [고려사]계

먼저 [고려사] 계통의 [고려사 지리지](단종 2년 1454년 간)에 수록된 삼성신화를 보면,

탐라현은 전라도 남쪽 바다에 있다.古記에 이르기를, 태초에 사람이 없더니, 세 神이 땅에서 솟아났다. 한라산의 북녘 기슭에 구멍이 있어 모흥혈이라 하니, 이 곳이 그것이다. 만이를 良乙那라 하고, 다음을 高乙那라 하고, 세째를 夫乙那라 했다. 세 신인은 황량한 들판에서 사냥을 하여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하루는 자주빛 흙으로 봉해진 나무함이 동쪽 바닷가에 떠밀려 오는 것을 보고 나아가 이를 열었더니, 그 안에는 돌함이 있고, 붉은 띠를 두르고 자주빛 옷을 입은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돌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송아지, 망아지, 그리고 오곡의 씨가 있었다. 이에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세 따님을 낳으시고 이르시되 서쪽 바다에 있는 산에 神子 세 사람이 탄강하시고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고 하시며 신에게 명하시어 세 따님을 모시도록 하므로 왔

3) 여기서는 삼성신화와의 관련 근거로 현용준의 앞의 글에서 은평리 설화와 관련된 부분만 요약하여 인용하였다.

아오니, 마땅히 배필을 삼아서 대업을 이루소서” 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 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장가를 들고, 물이 좋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점치니, 양을라가 거처하는 곳을 제1도라 하고, 고을라가 거처하는 곳을 제2도라 했으며, 부을라가 거처하는 곳을 제3도라 했다. 비로소 오곡의 씨앗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기르니 날로 살림이 풍부해지더라.

\* [영주지] 계

[영주지]는 단행본이 아니라, 세종 32년(1450년)에 高得宗이 지은 序世文과 기타 고씨세보에 점철되고 있는데, 그 중 규장각 소장본의 [영주지]에 실린 삼성신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영주에는 태초에 사람이 없었다. 홀연히 세 神人이 땅에서 솟아나니, 한 라산 북녘 기슭에 있는 모흥혈에서 솟아난 것이다. 만이를 高乙那, 다음을 良乙那, 셋째를 夫乙那라 했다. 그들의 용모는 장대하고 도량은 넓어서 인간세상에는 없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가죽옷을 입고 육식을 하면서 항상 사냥을 일삼아 가업을 이루지 못했었다.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 바라보니 자주빛 흙으로 봉한 나무함이 동해쪽으로 떠와서 머물러 떠나지 않았다. 세 사람이 내려가 이를 열어 보니, 그 속에는 새알 모양의 玉函이 있고, 자줏빛 옷에 관대를 띤 한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그 옥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나이는 15,6세요, 용모가 속되지 않아 아리따움이 보통이 아니었고, 각각이 아름답게 장식하여 같이 앉아 있었다. 또 망아지와 송아지, 오곡의 씨를 가지고 왔는데, 이를 金塘(朝天관 밑의 浦口)의 바닷가에 내려놓았다.

세 神人은 즐거워하여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하늘이 우리 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고 했다. 사자가 재배하고 엎드려 말하기를 “나는 동해 벽랑국의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이 세 공주를 낳으시고, 나이가 다 성숙해도 그 배우자를 얻지 못하여 항상 탄식함이 해가 넘는데, 근자에 우리 임금께서 紫素閣에 올라 서쪽 바다의 기상을 바라보시더니, 자주빛 기운이 하늘을 이어 상서로운 빛이 서리는 것을 보시고, 神子 세 사람이 절악에 내려와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으시다 하시고, 신에게 명하여 세 공주를 모셔 가라 하여 왔아오니, 마땅히 혼례를 올려서 대업을 이루소서”하고, 사자는 홀연히 구름을 타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세 神人은 곧 목욕 제제하여 하늘에 고하고, 나이 차례로 나누어 결혼하여 물 좋고 기름진 땅으로 나아가 활을 쏘아 거처할 땅을 정하니, 高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제1도라 하고, 良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제2도라 했으며, 夫乙那가 거처하는 곳을 제3도라 했다. 이로부터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오곡의 씨를 뿌리고 송아지 망아지를 치니 날로 살림이 부유해져서 드디어 인간의 세계를 이룩해 놓았다.

그 이후 900년이 지난 뒤에 인심이 모두 고씨에게 돌아갔으므로 고씨를 왕으로 삼아 국호를 탁라라 했다.

위에서 살펴 본 [고려사]와 [영주지]의 신화와 온평리의 [혼인지설화]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 삽화의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환죽=혼인지>의 설화는 <지명전설>의 성격을 띠면서, 위의 두 신화 보다 세 공주가 표류한 곳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동시에 그들이 온 곳이, 벽랑국이나 일본국이 아니라 <금관국>이라 하고 있으며, 상자나 옥함을 꽃상자, 즉 <花箱>으로 표현하여 <화상>이 떠오른 포구를 <화성개>라 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고량부 삼신인의 형태다름은 활을 쏘아서 정하지 않고 <나무에 오르기>로 정한 것이 위의 두 신화와 다른 점이다.

[삼성신화의 구성과 화소표]<sup>4)</sup>

제1단(삽화) : 삼신인의 출생과 생활 : 삼신인은 땅에서 솟아나 수렵생활하다.

| 화 소   | [고려사]계    | [영주지]계   | 온평리의 설화  |
|-------|-----------|----------|----------|
| 삼신인출생 | 모룡혈에서솟아나다 | 갈다       | 갈다       |
| 서열    | 장남 : 良乙那  | 장남 : 고을나 | 장남 : 고을나 |
|       | 차남 : 高乙那  | 차남 : 양을나 | 차남 : 양을나 |
|       | 삼남 : 夫乙那  | 삼남 : 부을나 | 삼남 : 부을나 |
| 생활    | 수렵생활로皮衣肉食 | 갈음       | 갈음       |

4) 1)의 글 본래의 도표에 온평리 설화를 첨가하여 새로 작성해 보았다.

제2단(삽화) : 삼신녀의 표류와 혼인 : 삼신녀가 바다로 떠오니 分娶하다.

|        |                                      |                        |                       |
|--------|--------------------------------------|------------------------|-----------------------|
| 三神女    | 일본국의 왕녀                              | 동해 벽랑국의 왕녀             | 금관국의 왕녀               |
| 표착한 곳  | 東海濱=閔雲里<br>(온평리)                     | 東海濱=金塘<br>(조천리)        | 閔雲里=溫平里<br>〈화성개〉      |
| 도래 방법  | 목합 속의 석함에<br>담겨 떠오다                  | 목합속의 鳥卵形玉<br>函에 담겨 떠오다 | 花箱에 담겨 〈화성<br>개〉에 오르다 |
| 휴대할 물건 | 오곡의 씨와 송아지                           | 같음                     | 같음                    |
| 사자의 전언 | 삼신녀를 배필삼아<br>건국하라 전언하고<br>구름을 타고 떠나다 | 같음                     | 없음                    |
| 분취방법   | 나이 차례로 장가들<br>다                      | 같음                     | 같음                    |
| 군신서열   | 없음                                   | 돌을 쏘아 용력을<br>시험        | 없음                    |
| 형제서열   | 없음                                   | 없음                     | 나무에 오르기               |
| 주거지 선정 | 활을 쏘아 정함                             | 같음                     | 없음                    |

여기에서 우리는 삼신녀가 표류한 곳이 〈금당=조천리〉와 〈화성개=온평리〉로 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온평리 본향당 본풀이〉에서 보면, 본향당신은 “명천자 孫” 또는 “서울 정승의 딸”인데 큰 딸은 조천리, 둘째 딸은 김녕리, 셋째 딸은 온평리로 들어와 당신으로 좌정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삼성신화의 삼신녀가 조천으로 들어 왔다고도 하고 온평리로 들어 왔다고도 하는 점과, 당본풀이에서 조천, 김녕, 온평리로 삼형제가 들어왔다는 점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도 같다. 게다가 온평리는 혼인지 못이 있어 삼성신화와의 관련을 확인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里民

###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들의 신앙의 대상인 <본향한집>의 본풀이가 삼성신화와 유사한 점은 주의해 살펴볼만 한 것이다. 만일 三姓神話가 온평리 <본향당본풀이>와 유사하다면, 삼성신화는 고·량·부 삼성을 단골로 가진 <당본풀이>일 것이며, 고·량·부 삼성은 세력에 따라 상단궐·중단궐·하단궐을 이루어 신앙집단을 형성하였고 동시에 마을(또는 부족국가)를 설촌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당본풀이>인데, 탐라국의 건국과 더불어 건국신화로 각색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이 타당하다면, 삼성시조신화 시대부터 벌써 삼성<열운이>는 당을 중심으로 하여, 수렵생활을 하다가 농업 정착생활로 이전해가는 신앙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마을이 설촌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5)</sup> 그러면 온평리의 신앙을 조사하여 설촌과 신앙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다.

## 3. 온평리의 신앙

온평리의 신앙 조사에서 주목했던 것은 유교식 마을제와 당굿의 신과세제를 같은 날 거행하며, 이를 <포제>와 <포젯굿>이라 한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포제>를 치르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마을굿을 치르는 것은 마을굿이 본래 남성 중심의 유교식 제의와 여성 중심의 무속적 당굿으로 이원화 되기 이전의 마을굿의 원형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마을굿은 원래가 남성과 여성 모두 공동으로 巫武祭堂에서 <당굿>으로 치르던 것이, 후대에 와서 남성은 유교식 <포제>를 치르게 되고, 여성은 본래의 <당굿>을 계속 전승하여 왔으므로<sup>6)</sup>,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치르던 <당굿>이 후대에 변하여 <포제>와 <당굿>으로 분리되었다는 증거가, 남녀로 역할은 분담되어 제례의 의식은 따로 치르지만,

5) 현용준, 앞의 글, pp.47~57.

6) 현용준, [부락당제], (문화재관리국, 1969), p.300.

유교와 무속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만큼 본향당을 중심으로 하는 당신앙의 영향이 큰 것이며, 보다 고대의 다시 말하면, <혼인지> 혈거 시대의 원래의 당굿, 고량부불 상단골·중단골·하단골로 하는 원시신앙 공동체, 그 원형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한다.

그리고 <포제>와 <포젯굿>의 회생과 제물을 같이 장만하는 것도 이러한 온평리 마을 신앙의 특수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온평리는 소를 잡아 회생을 드린다. 그 이유는 본향한집(본향당신)이 돼지고기를 부정시 하는 <금기>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당신앙의 강세를 보여주는 마을의 특색이기도 하다. 祭式은 다르지만 祭日과 祭物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온평리의 <포제>와 <포젯굿>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유교식 의례가 집례되기 이전의 제주도 <당굿>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 (1) 마을 포제

해마다 마을의 이정을 담당한 이장의 걱정거리는 포제를 어떻게 치르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옛날에는 너도 나도 제관을 하려 했고, 자기 집안에 제관을 주지 않으면 싸움이 난다든지 했었는데, 요즘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 할 사람이 없다. 15일 이상을 이장은 제관을 빌러 돌아 다녀야 한다고 한다. 왜 제관을 꺼리느냐 하면, 제관이 되어 제를 잘못 모셨을 경우, 자기에 게 해가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부담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관선출도 해방이 된 후, 10년 까지는 각 성씨 중 1인을 뽑아서 포제의 제관을 맡겼는데, 그 후로 요즘은 여기는 유교식 천제를 지내기 때문에, 천주교나 기독교 믿는 사람은 제관으로 뽑아주지 않고, 유교식으로 천제도 지내고 제석제도 지내는 사람으로만 뽑아 오다가 이제 종교인이 많아지니까, 그와 같이 성씨별로 뽑는 것도 곤란하게 되었고, 젊은 세대가 등장함으로 해서 제관을 맡을 분이 점점 줄어들고, 또 제관은 부친이나 형제간 중에 상을 만나서도 될 수 없는 것이기

##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때문에, 또 제관은 병자가 아닌 신체 건전한 사람을 고르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다. 옛날에는 집안에서 한 사람의 제관이 나오며는 여섯 끼니나 일곱 끼니를 돌아가면서 한 때씩 맡아서 열 두가지 반찬을 해서 올려 집안의 우세도 자랑하였다.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73년도(강태홍 이장 당시)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의례 간소화 운동도 할 무렵에, 그 때는 제관을 16명을 뽑아야 하였다. 초헌·아헌·중헌·전사관·집례·대축·알자·전작·찬인 등. 간소화안을 채택해서 인원을 줄여 보았다. 하등에 필요치 않은 제관은 빼고 해서 7명 정도로 줄이게 되었다. 초헌·아헌·중헌·전사관·집례·대축·알자 해서, 7명을 해 가지고 “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데, 합숙을 해서 비용은 공동부담으로 해서 음식 같은 것도 다른 곳에서는 정성하는 데(祭所)로 들어 오지 못하도록 제소에서 만들고, 그 때는 제미(祭米)라고 해서 쌀로 받았는데, 각 호마다 농사짓는 데는 반드시 전부 받았는데, 생활정도를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상인 경우는 대미라고 해서 백미로 받고, 중하인 경우는 소미라고 해서 좁쌀로 한 되씩 내어서 이것을 모아 가지고 소를 잡아서 하다가 소잡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소 대신 닭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 대신 소고기 몇 근 떠다가 포육으로 절인 것을 내 놓았는데(강태홍 이장 당시), 쟁상에 올린 것을 보며는 전서육이라고 해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6년 동안 제를 지내었고, 그것이 토착화 했는데, 다음 말은 사람들은 또 소를 잡기 시작해서 이제는 돈을 가구당 3~4000원씩 거출해 가지고 자그마한 소를 사서 잡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 온평리의 <포제>는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치러 지는가.

제관이 선출되어 제소에 들어가면 3일 정성을 한다.

첫째날은 서로 준비할 것에 대한 토의와 포제의 예행연습을 한다. 제복은 5년 전에 새로 마련되어 있으며, 포제에서 남은 비용으로 장만한 것이다. 첫째날, 즉 포제를 치르기 3일 전에 집례의 집행에 의해서 알자가 시키는 대로 제관들(초헌·아헌·중헌)은 따라만 하면 된다. 이러한 예행연습으로 제의식을 익히고, 실제로 행제시에는 고쳐서 진행하지 않는다.

둘째날은 제물과 제례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준비한다. 제물을 준비할 때는 <포제>에 쓸 것은 물론 <포켓굿>에 쓸 제물들도 같이 준비한다.

포제에 쓰는 제물은 거의 생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한집에 가는거 만큼은 돌래떡이나 다른 떡도 모두 제소에서 만들어 현장에 가지고 가면 <한집제물>이라 해서 따로 둔다.

셋째날은 제물을 봉헌하고 제단으로 가는 것이다.

제를 지내는 시간은 보통 12시~1시 사이, 子時에 제를 지낸다. 제단에도 착하는 시간은 헌관을 제외해 놓고 대축과 집례는 제물을 가지고 9시 반에 제단으로 출발하고, 제단에 도착하면 모든 준비를 하고 <산 메를 친다> 제를 지내기 두 시간 전에 췌단에서 메를 찌는 것을 "산 메를 찌다"라고 하는데, 산 메를 찢 때, 멧밥이 설익으면 그 해 농사가 가문다고 하고, 또 멧밥이 너무 익으면, 그 해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

산 메를 치고, 준비가 다 되면, 알자는 헌관들을 모시고, 한 10시 반이나 11시 쯤 해서 제소를 출발해서 제단에 이르면, 초헌관이 제를 집행할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그 진전사항을 둘러보아, 대축 됐으면 "됐다"하고, 일정한 장소에 대기 2~30분 기다렸다가, 거기서 향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는데, 제를 모시는 현장에서는 잘못이 있어도 번복이 없다. 못하면 못한대로 그냥 지나간다. 축을 잘못 읽었다고 해서 고집지 않는다.

처음 <포제>를 시작해서 국궁배 4배를 할 때는, <한집>에서도 심방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연물(巫樂器)를 쳐서 <삼석울림>을 한다. 포켓단과 한집과의 거리는 약 200m 정도에 있으며, <포켓굿>을 맡은 심방들은 그 날 한집에서 자며 대기하고 있다. 포켓날 9시 반쯤에 제단에 가면 소 앞다리(前脚)하고 제물, 닭 같은 것을 <한집제물>이라고 따로 제소에 봉해 둔다. <포제>가 끝나 다음에는 다시 제소로 와 가지고 간단히 음복을 하고, 원래 분육은 그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한집에 가기 전에 분육을 한다. 분육에 대하여 강태홍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 재관이 재소에 들머는 겨울입니다. 꼭 입춘 후니까, 입춘이 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해, 或丁 或 일, 이렇게 해 가지고 정시집(地官)에 가서 날짜를 택일하고 그래서 삼일정성을 한다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추운데 밤낮 고생을 한다고 해서, 소를 큰 것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작은 것을 잡아, 한집에 한 다리는 올리면 심방들이 갈라 먹고, 나머지는 전부 분육을 해서 재관들 전부하고, 거기 또 간감이라고 마을의 소사, 그 사람이 전부 올라 다니면서 심부름을 다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면서 당을 맡은 사람 중에 소미(小巫) 하나 빌어서 밥도 짓고 허니까 그런 사람까지 포함시켜 가량을 해서 분육을 합니다. 또 각 고을 제사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술이라도 한잔씩 하게 안주라도 보내고.

분육하고 먹고 하다가 날이 밝으면 한집에 가는데 재관들은 <포제>를 지낼 때는 유건하고 큰 제복을 해 가지고 제를 지내지만, 다음날 새벽에 한집(당)에 갈 때는 두루마기를 입고, 갖청관 해서 당사로 나가 굿할 때는 <삼헌관 걸시킴>제차가 되면, 삼헌관 및 제집사가 다같이 절을 한다.

### \* 포젓상회(祭鄉會)

한집에 갔다 오며는 끝나는 날 낮에 전 이민을 재소에 모여 <포젓상회>를 해서 경과보고를 하고 끝나면, 반장들도 선출하고 하는 옛날의 풍습이 있다. <포젓상회>는 그 해 포제에 대한 평가와 경비가 어떻게 들었는다는 결산을 하고 끝난다. 그런데 옛날에는 <포젓상회>는 이민총회가 되어, 마을제가 의례와 잔치와 회의를 아우른 연중행사이며 축제였는데, 요즘은 단지 포제의 결과보고, 당면과제, 건의사항 같은 걸 좀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며, 끝나면 반장들을 선출하는데, 자기 반 사람들이 임명하면 마을에서 추천하는 형식이다. 재관의 구성은 처음에 16제관을 두었다가, 73년 이후, 7제관으로 줄었고, 지금은 6제관으로 구성하나 별 불편이 없다고 한다.

6제관은 초헌관, 아헌관, 중헌관, 알자, 집례, 대축.

## (2) 당신앙

온평리의 마을굿은 포제를 지낸 다음 날, 본향당에서 하는 <신년과세제>인 <포젯굿>과 <군인굿>, <영등굿>, <마블림제>, <시만국대제>가 있다.

<포젯굿>은 제소에서 마련된 소의 전각(앞다리), 닭, 재물 등을 차려서 하는데, 다른 마을의 <신과세제>와 같이 <앉은제>가 아니라 <산굿-수심방이 서서 하는 굿>으로 치르며, “본향을 청하여 놀리고 마을의 액을 막고, 산을 받는 것”은 다른 마을과 같지만, 본향을 놀릴 때는 “문씨영감(堂神)이 두 일찍 열 나흘 물속에 있다가 <개암용머리(지명)>로 솟아날 때 가지고 나온 문씨영감의 갖을 막 놀려야 영감이 풀린다”고 한다.

### ① 온평리 당의 본포

온평리에는 당이 일곱 군데나 있다.

본향당에는 마을 사람 전체가 다니지만, 각 처에서 가지 갈라온 당은 거리상의 이유와 생산집단의 특성에 의해 웃당과 알당으로 나뉘어 다른 신앙권을 형성하고 있다. 온평리는 네개의 마을로 되어 있어, 웃동네 알동네 또는 동동섯동으로 나뉘어 東西, 上下의 구분이 작용하며, 그래서 가지당인 경우도 웃당과 알당으로 구분을 하여, 자기 신앙권에 새로운 당을 마련하여, 장거리에 있는 당에 가는 대신 자기 마을 근처의 당으로 다니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하나의 당에는 또 여러 신위를 모시게 되어 있다.

온평리의 당의 위치와 본파를 살펴보면, 본향당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된 당이 <묵은열운이당>이다. 그런데 이 당은 <서근께>로 갈라다 따로 모셔 <서근께당>이 생기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해신당이 있는 자리에 다시 <묵은열운이당>을 증산하여(가지 갈라다가) 따로 모셔 <돌갯당>이 이루어졌다. 또 <돌갯당>은 <용머리>에 있는 돈지당(해신당)에 증산하여 <용머리당>이 이루어졌다. 또 세화리에서 갈라 온 <돌혹당>은 증산하여 <넛빌레도 돛당>이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온평리에 있는 당의 성격을 구별하려면, 그 당이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어디에서 가지 갈라 온 것이며, 원래는 어떠한 당이었는데가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온평리 여러 당들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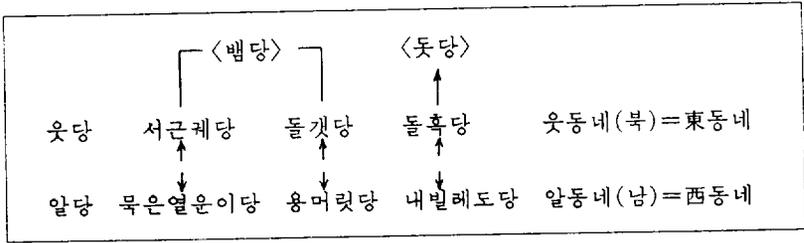
| 당 명<br>성 격 | 열운<br>이당 | 서군계 | 본향당 | 돌곶당 | 용머리 | 넛<br>빌<br>도 | 돌<br>혹 |
|------------|----------|-----|-----|-----|-----|-------------|--------|
| 본 향 당      |          |     | ○   |     |     |             |        |
| 토 산 한 집    | ○        | ○   |     | ○   | ○   |             |        |
| 세 화 리 한 집  |          |     |     |     |     | ○           | ○      |
| 해신당 · 돈지당  |          |     |     | ○   | ○   |             |        |
| 현 씨 일 월 당  |          |     |     | ○   |     |             |        |

이와 같이 당을 옮기면서, 원래 있었던 당신과 중산해 온 당신을 함께 모시면서 한 장소에 세개의 신을 모시고, 세 신의 기능을 다 관장하는 당이 생긴다. 세 당이 한 장소에 있기 때문이다.

또 당은 지역에 따라 東西-上下로 나뉘어 신앙권을 이루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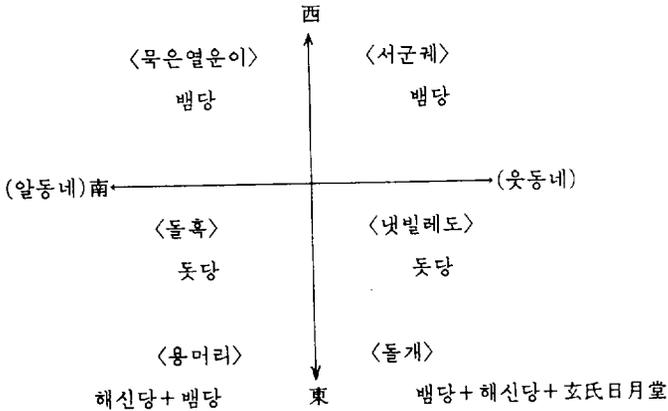
온평리의 당의 성격을 도표에서 살펴보면, 생산·물고·호적·장적을 차지한 <본향당>과 <토산 서편한집>이라는 <뱀당>과 <세화리한집>이라는 <뚝당=豚堂> 그리고 <해신당>과 <현씨일월당>이 중산하여(가지를 갈라서) 7군데로 갈려 나간 것을 알 수 있으며,

<뱀당>은 <목은열운이당>→<서군계당>→<돌곶동산당>→<용머릿당>으로 가지 갈라 네개의 당이 이루어졌으며, <뚝당>은 <돌혹당>→<넛빌레도당>으로 두 개의 당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가지 갈라 간 이유는 지리적으로 당이 먼 거리에 있다는 점도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이와 같이 웃동네와 알동네, 동동네와 섯동네에 각각 다른 당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이를 네개의 신앙권 또는 두개의 신앙권으로 나눌 수 있다.

[온평리 가짓당의 분포도]



위의 그림을 보면, 온평리는 뚜렷한 신앙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본향제일〉에는 마을 사람 전체가 본향당에 모이지만, 아이의 병이 났다든가, 뫼당에 걸려 머리아파를 한다든가, 요왕에 비뉘할 일이 생기면, 저마다 일췘날, 여드렛날을 택일하여 자기 신앙권역에 있는 당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② 온평리의 당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 진동산<본향한집>

- 신의 이름-동 : 멩오부인, 서 : 문씨영감 (2神位)
- 당의 명칭-진동산 본향한집, 본향당 또는 한집
- 당의 갈래-본향당(신산리 만물개 신도릿빌레 고장남밭 범성굴왓에서 가지 갈라 온 당)
- 당신의 기능-물고, 장적, 호적, 생산을 차지한 神으로, 과거를 보거나, 시험볼 때도 가고, 군대에 입·제대에도 다닌다.
- 제물-돼지고기를 일체 올리지 않으며, 소를 잡아서 굿을 한다.
- 제일-신과세제(음력 정월 포제 다음날)  
    마불림대제(음력 7월 7일)  
    시만국대제(음력 10월 7일)
- 단결-고씨 상단결, 이외에는 모두 만민단결  
    (고씨가 설비한 당으로 상단결이 되기 때문에 당굿을 할 때는 고씨 하르방 자손이 제물을 제단 바로 앞에 놓다. 그리고 당신인 문씨영감의 묘가 <배자못> 부근에 있는데, 당을 맨 심방이 벌초를 한다.)
- 당의 이전  
    <마플림동산>→<당동산>→<진동산> [지도 참조]

\* 목은열운이당

- 신의 이름-웃토산(일토포) 서편한집, 알토산(여드렛포)(2神位)
- 당의 명칭-목은열운이서편한집, 토산당, 뱀당
- 당의 갈래-토산에서 가지 갈라 온 당
- 당신의 기능-치병신, 피부병과 아기 아픈 데
- 제물-돼지고기를 일체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 제일-특별한 제일은 없고 택일 해서 다닌다. (7일, 17일)
- 단결-목은열운이에게 가까운 마을사람 일부

\* 서근케당

목은 열운이와 대동소이

- 당의 갈래—묵은열운이에서 가지갈라 온 당
- 단결—웃동네 서근케에 가까운 사람 일부

\* 돌곶동산당

- 신의 이름—돌개할망, 일췌할망, 요드레할망, 현씨일월(4神位)
- 당의 명칭—돌곶당, 일췌당, 돌개할망당,
- 당의 갈래—돌개할망~개맛 지키는 할망(본래 있던 당)  
일췌할망~묵은열운이서 가지 갈라온 당  
현씨일월당~신천리서 가지 갈라온 일월조상(당)
- 당신의 기능—잠수, 어부들을 관장한다. 어선이 나가든지 해녀들이 물에 들 때 사고없이 소망을 이뤄달라고 비는 개맛(포구=돈지)을 지키는 당이다.
- 제물—물에는 소라고둥이란 뱃고동 모양으로 생긴 것이 있는데, 물속에서 주우면 할망에게 고동 껍데기를 가져다 올린다. 그 이유는 해녀들이 그것을 보면 재수가 없으니, “할마니 이런 거 눈에 띄이지 말게 해 줘서” 해서 올리는 것이며, 거북이 올라와도 <요왕말젓뜰애기>라 해서 해녀들이 모여 들어 바다에 띄운다. <요왕말젓뜰애기>라고 하는 거북이 눈에 띄면 재수가 없어 물에 들어도 몇 물질을 탕구린다(헛탕치게 한다). 죽은 거북을 보아도 끌어서 간단한 젓상을 차려 제를 지내고 멀리 띄워 보낸다.
- 제일—아무때나 택일해서 다닌다. (7일, 17일)—일췌당
- 단결—웃동네 해변의 일부 주민들. 특히 어로, 잠수에 종사하는 사람들

\* 용머리일췌당

돌개할망과 같다.

- 당의 갈래—웃동네, 알동네 상하동이니까, 돌개에서 가지 갈라 온 당
- 당신의 기능—돌개와 같지만 특히 허물할망이라고 해서 아기들의 부스

##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럼 피부병, 허물을 쓸어주는 할망.

- 제일-제일은 없다. 가고 싶은 날 가고, 아이들이 괴롭다든지 저드라진 일이 있으면 간다.

### \* 돌혹당

- 신의 이름-서화리 한집
- 당의 명칭-서화리 한집, 돌혹 돛당, 돛제허는 당, 무서운 당.
- 당의 갈래-서화리(구좌읍 세화리)에서 갈라 온 당
- 당신의 기능-머리가 아프거나, 돛당에 걸린 환자 치병신.
- 제물-잔치가 있을 때 아버지 脞祀를 받아 먹는다. 돼지고기를 올린다.
- 단결-마을 사람 일부
- 제일-따로 없다. 잔치날 또는 돼지를 잡았을 때, 돛당에 걸린 환자가 있을 때.

### \* 넷빌레도 돛당

돌혹당과 같다.

<넷빌레(지명)>가는 도(길목)에 있는 <돛당>으로 돌혹에서 가지 갈라 온 당.

### ③ 온평리의 당본풀이

당본풀이 (1) [본향한집]

[채록일 : 89. 8. 18. 제보자 : 현여정(남·78세)]

옛날 서울서 정승의 딸 애기씨가 지장발을 돌아보라고 했더니 지장발에 가서 지장의 고고리(이삭)를 꺾었던 모양이라 마씀. 꺾어 버리니까, 아버지가 제주도로 귀양을 보내 버렸는디, 큰딸은 조천이고, 셋딸은(둘째) 김녕이고, 작은 딸은 멩호부인이라고 열운이를 주로 삼아 와서 보니까, 열운이는 은신혈 디가 없거든 마씀. 신산리 그등애(신산리의 옛지명)라고 해서 거기

를 가서 이제 바라보니까, 묵은 열운이가 적당하니까, 그덜 와서 좌정하였  
다 하여 마썸. 우리 온평리는 옛날에는 아마 그 한집을 위하지 않다가 문씨  
엔 한 이가 이 황날에서, 고량부 삼성 각지가 올라 오라난 개(포구) 초곳디  
(근처) 빠져서 아홉 살에 그 문씨엔 한 이가 빠졌답니다. 문씨가 빠져서 물  
아래도 두 일뿔, 물 위도 두 일뿔 열 나흘을 보내고, 개암용머리(지명)로  
나와서, 개암용머리로 솟아날 때는 유리잔과 금뿔대니, 금벼루니 하는 걸  
가져 나왔다 하여 마썸. 나와서 아마 그 양반이 나올 때는 무쇠갓을 쓰고  
나왔는데, 아마 문씨가 몸이 아파서 뿔 해가니, 어디 가서 들으니 그한집  
때문이라 허니, 한집에 집사관으로 들어가서 한집을 위하면서 이디 중산해  
다가(가지 갈라다가) 모사네(모셔서), 그 문씨가 요새 같으면 심방질허고,  
“밤인 들면 불 썬(불을 켜) 가오, 낮인 들면 내 난(연기 나는) 가오” 하여  
돌아 멩기면서 장적. 호적 차지했다 하여 마썸. 그러니까 그 양반은 돼지고  
길 일절 안 먹기 때문에 온평리에선 돼지고길 먹고 당에 가지 않습니다. 당  
에 가보면 한집(당신)의 이름을 유씨부인이라 써 붙였는데 유씨부인이 아니  
라 멩호부인이 맞수다. 정승딸인디 삼형제가 와설란 큰 딸은 정중부인이라  
해서 조천이고, 이조부인은 김녕이고, 멩호부인은 온평이라 마썸. 정원에  
포켓긋히고 칠월 초일뿔는 마플림제라고 해서 한집 옷을 다 해서 갑니다.  
옛날은 한집 머리라고 한 발 이상 맑은 거 참 윤도 나고 좋은 게 이서났는  
디 다 도적맞고, 지금은 문씨 영감이 쓰던 것이 남아 이실거두다.

당본풀이 (2) [본향 한집]

[채록일 : 88. 8. 3. 제보자 : 현금순(여·59세)]

온평리 본향은 신도릿빌레로 올라오란 고장남밭으로 간 좌정해십주. 그디  
로 간 좌정헌 당 설립을 헌 집을 지셨는데, 또 그 당이 가지 가지 송에 송  
애 벌언 온평리로 가라 와십주. 온평리로 갈라와네 침 운영을 해 가는데,  
문씨 영감이 이십주께. 문씨 영감이 이젠 솟아나난 혼 일곱설 되두록 구덕  
베졌디도 못나가곡 구덕 안의도 못나가곡 일곱설되도 양, 아진 디 아잔 구  
덕 안에서 산 거라 마썸. 살다네 그 어머이 만국 시월달 돌 뜨기 전에 물질  
레 가부난, 이 문씨 영감이 황노알(지명)로 간 빠져서 양, 황날로 빠전 물  
우의도 두 일뿔, 물 아래도 두 일뿔 열 나흘을 사난 이젠 물 아래선 너는  
이제 물 아래선 아무 소용도 어시메 베졌덜로 나가그네 만민단골로 가그네

##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조끔 침 그늘과 주라 헨 나올 적에, 유리대에 금채 옥채 도 쇠갓 해연 문딱 안고득이 안아네 개암용머리(지명)로 솟아난 양. 그 문씨 영감이 당설립을 안허고 솟아난 건디. 고침이 하르방이 서울 가그네 혼 다섯번을 가도 과거를 띠우레 가도 못헌거라 마썸. 하르방이 문점을 헨 이젠 하르방이 허는 말이 어디 간 문점을 허난 당신네 모을 안에 일월(=조상)고튼 남재가 있젠. 일월고튼 남자가 이신디, 어떻 헨 아자 울고 사 울고 허는 일월이 이시니 허난. 있수덴 허난. 곧 고씨 하르방고라 이 하르방이 당설립을 해 가지고 모을 안에 단민단결을 그늘르랜 해주게. 이 황날 도(입구)로 처음엔 조그만 허게 당을 설립해네 침 맹호부인 맹호안전 문씨영감을 당설립해연 다니잖여. 이젠 이, 진동산 당동산으로 설립해네 집을 지은 거라. 예, 집을 짓어네 모셔 오라서 마썸. 모셔 오란 적허고, 이젠 이거 당이 고씨 하르방 설립헌 당이우다게. 경해네 촌말로 온평리 당이 크게시리 설립해그네 이추록 전부 모셔수다게.

- 당의 위치-진동산
- 당신의 이름-맹호부인 맹호안전 문씨영감
- 메-한 그릇. \* 온평리 본향은 신이 세다.
- 당제일-정월 나면 포제 때 굿하고, 군인굿하고, 영등굿하고 7월 초 일째 굿하고.
- 단결-상단골 고침 하르방
- 당을 맨 때-삼년
- 매킨심방의 계보-문씨선생-한씨선생-최씨선생-최씨선생- 문씨선생-송씨선생--한씨선생-최씨선생-송회금(남·58세)-현금순(여·59세)
- 신과세-포켓날, 영등굿-이월 열 사흘날, 마풀림-7월 초일렛날 시단국 거뒤들이면 하고, 군인굿-택일
- 당의 유래-맹호부인 맹호안전은 신산리 신도릿빌레로 올라오란 고장남밖으로 간. 그디도 큰집 지셨수다. 글로 간 좌정헌 건디 그디시 가지 가지 송이 송이 가지갈라 와십주. 문씨영감은 온평리서 솟아난 겁주.
- 제의 방법-본향만 들곡, 문만 올린다. (놀이굿 없음).산 곳 요왕맞 이는 영등굿 때.

당본풀이 (3) [현씨일월]

[채록일: 88.8.3. 채보자: 현금순(여·59세)]

현씨일월 아기가 우리 모양으로 팔자 굵은 나사나네, 굵을 해도랜 허난 굵을 허젠 해도 설쇄도 었지, 연물이 어선 못허지, 못허게 되난 첨 오라방 이 "설운 누이야, 나가 육지 가그네 석수(설쇄)영 연물이영 다 행. 오크매 이시랜" 허난 오라방은 경현 나가그네게 십지러래 봐래 판 "아이구 우리 오라방 감구나" 헐 십지 올라 산 봐보난 오똥 배파산 행 설러블고 마썸. 우리 오라방은 배파산 행 죽어가는데 난 살앙 무시것 허리 헐 언디 알로 간 빠전 죽어부러십주. 겐 죽어부나네 현씨일월 산도 저디 이십주 이서. 언디알로 간 빠전 죽어부런. 어느 것엔 본이 아니들어 갈 수 있수가.

당본풀이 (4) [본향한집]

[채록일 : 89. 8. 24. 재보자 : 임화모친]

맹호부인은 옛날 명나라에 명천자 손이라 마썸. 경현디 맹호부인이 이거 삼형제우다. 어명눈에 골리나고 아방눈에 시찌나고, 아마 부모 어명 아방에 뒤 잘못된 것이 이셨던 고라. 이제 허난 옛날은 귀양을 많이 보내십주게. 귀양을 많이 보내난 이제, 삼형제 제주도도 보냈어. 큰성은 조천 정중부인 이고, 본향도 들이사고, 또 이제 셋성은 김녕 황새부인 본향으로 들어사고, 죽은 아시는 맹호부인이라 마썸. 맹호부인은 우리 모을 초치헌 본향한집이라 마썸. 겐디 다 처너라. 처년디, 이제 맹호부인은 온평리 본향인디, 어들로 좌정했느냐 허며는 신산이 고장남밭 범성굴왓 신도릿빌레, 예, 경현디 그디 좌정헌 맹호부인이 신산이 있는디, 또 여기서 신산이 갈 수가 못되니까, 예, 우리도 신산리 맹호부인을 가지 갈랑 읍시다. 헐 이제 맹호부인이 온평리로 좌정허연 제라게 챗번이로 오란 좌정헌단 만물개 신도릿빌레 고장남밭 범성굴왓이라고 거기 만물개 알래 이서났주. 경현디 온평리서는 가지 갈라 오랐지. 거기 자꾸 갈 수 었다. 가지갈라 오고, 또 조순덜도 많이 벌 어지고. 이제 본향을 초지헌 허는디, 문씨영감은 어떻게 했느냐 허며는 이제, 문씨영감은 일곱설 나도록 구덕 안에서 앵앵앵앵 울기만 허곡, 원 이견 구덕 베졌디 나오라 보지도 못허고, 이견 뭐 사름도 아니고, 사름은 사름인디, 원 구신도 아니고 그자 앵앵앵앵 울기만 하면서 일곱설 나도록 이제 영 허난 호루는 요즈음은 수도도 있고 썸이도 중간에 이셨주마는 저 혼인죽 물을, 온평리선 혼인죽 물을 전부 먹었수다. 혼인죽 물을 어명이 질레 가분 녀에 오란보난, 물은 질언 완 보난, 원 얘기가 어신겨라. 만국 소시월 시월 초일렛날에, 초일렛날은 계염용머리로 문씨영감이 나올 때, 물 아래도 일뻘.

####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물 우이도 일찍 두 일찍 열 나흘을 살단보난 여기 백성들 조순을 찾지 못허연, 만국 소시월 초일렛날 돌지기로, 개암용머리 초일렛날 돌 저갈 무렵에 나왔던 모양이라. 나온 걸 보니까, 혼 손에는 유리잔, 혼 손에는 유리대, 이제 갓 썬 건 보난 무쇠갓을 쓰고, 청화도푹을 입고 딱 나오라서, 한집 멩호부인에게 명함을 들여서, 이제 멩호부인 신하우다. 거기 당 직현 심방 모양으로 야. 신하라 마썰. 멩호부인 서기 모양으로, 집사 정도로 영 허니까, 이제 문씨영감 죽은 디, 요기 배자못(지명)있수다. 배자못에 묘가 있수다. 당하니까, 당 책임진 사름이 벌초허곡 예, 또 저기 경허니까 그제 남편이라, 뭐라 해도 절대로 남편이 아니여. 거기 신하로, 옛날 말로 멩호부인 데린 신하우다. 영헨 조순도 엇고, 멩호부인도 처녀 아기씨고, 문씨영감도 총각 이니까, 부부간이 아니라도 이제 직함을 높혀서 멩호부인은 동서자허고 문씨영감은 서백자로 모셨수다. 삼제일은 야, 정월에 과세문안, 칠월칠석에 마플림, 시월 초일렛날 한집 솟아난 생신일로 딱 삼제일 영 뒤엿수다.

본향에는 대제일 날도 가고 초일렛, 열일렛, 스무일렛는 잘 안 갑니다. 대부분 초일렛, 열 일렛, 아니 우리 땡길 때는 4·3사전에 밤이고 낮이고 주야장천에 땡겼지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큰 일이 나서 운동회나 뭐나 열린덴 허머는 한집에 우선 강 보곡, 군인 간 아이덜도 가서 뵈곡.

### 4. 神堂의 移轉과 마을의 설촌

앞에서 온평리 <본향당본풀이>가 삼성신화와 비슷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향풀이>에서 여신이 제주도에 입도하는 곳은,

큰 딸은 조천리 정중부인이고,

둘째 딸은 김녕리 황세부인이고,

셋째 딸은 온평리 멩호부인이라 하였으니까,

조천리, 김녕리의 설촌연대와 온평리는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만일 <삼성신화>가 마을 설촌의 <당본풀이>인데, 건국신화로 각색된 것이 라면, 온평리 <당본풀이>는 <삼성신화>와 비슷한 모티브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사실 앞에서 채록된 온평리 <본향당 본풀이>는 그것을 입

증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본풀이는 신화이면서 동시에 역사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많은 각색과 첨삭을 거치면서 오늘에 구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을 참작하여 살펴 본다 하더라도, 온평리의 <당본풀이>에 나오는 여신 <멩호부인>은 신산리(만물개 신도릿빌레 고장남밭 범성굴윗)에서 가지 갈라온 堂神이므로, <당본풀이>가 마을의 설촌과 관련이 있다면, 조천리, 김녕리, 신산리 등의 설촌은 비슷한 시기일 것이며, 온평리는 그 보다 조금 뒤에 설촌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삼성신화>에서도 동해바다로 三女神이 표류한 지역을 조천리(금당)와 온평리(화성개)로 적고 있으므로, 두 지역의 설촌 연대는 서로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온평리는 본향당이 아니더라도 <가지 갈라 온 당>이 있다.

<목은열운이>에 처음 사람이 살았다고 하며, 거기에 또 토산리에서 가지 갈라 온 <토산서편한집>이라는 뱀당이 있고, 세화리에서 가지 갈라 온 <돌혹서화리한집>이라는 뚝당이 있다. 이는 토산리나 세화리가 설촌된 이후에 온평리로 이주해 온 사람들에게 의해 신봉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마을의 설촌연대라도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의 이전은 온평리에 시집을 오면서 당신을 모셔와서 중산하는(가지 갈라 오는) 것이므로 온평리와 서로 사돈을 맺는 동촌권을 염두에 두고, 이웃 마을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신양리, 고성리의 설촌연대도 서로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혼인지 전설과 삼성신화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온평리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1500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그러나 이 시기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마을이 설촌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온평리의 당본풀이에 나오는 여신 멩호부인은 “명나라 명천자 孫” 또는 “서울 정승의 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나라의 건국이 1368년이므로 이것은 후대에 각색된 화소로 생각되며, <본풀이>는 오히려 원명 교체기에 형성된 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겠다. 이러한 것이 <삼성신화>와 <당본풀이>의 비교에 무리를 가져오는 점이기도 하지만, <본풀이>가 <삼성신화>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 탐라의 건국 시기 이후에, 끊임없이 첨삭이 이루어져 “명천자의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각 마을의 설촌연대]

| 마을명 | 본향당   | 가지당  | 설촌연대   | 설촌유래        |
|-----|-------|------|--------|-------------|
| 조천리 | 정중부인당 | 서편한집 | 1500년전 | 삼성신화와 관련    |
| 김녕리 | 황세부인당 |      | 800년전  | 당본풀이와 관련    |
| 신산리 | 맹호부인당 |      | 1000년전 | 당본풀이와 관련    |
| 난산리 |       |      | 1000년전 |             |
| 수산리 | 울뢰모루당 |      | 800여년전 |             |
| 고성리 | 올레모루당 |      | 800여년전 |             |
| 토산리 | 서편한집  |      | 1000년전 | 온평리에 가지 갈라감 |
| 새화리 | 돛당    |      | 6~700년 | 온평리에 가지 갈라감 |
| 온평리 |       |      | 돛당·서편당 | 800여년전      |

\* 설촌연대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각 마을의 마을지를 참고로 함

손” 또는 “정승의 딸”로 바뀌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풀이는 신화이면서 동시에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지금까지의 살펴 본 여러가지 점에서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위의 각 마을의 설촌 연대는 확실한 것이 아니고, 촌로들의 증언에 의해 대강 짐작하는 것이다. 조천리는 <삼성신화>시대부터 설촌연대를 잡고 있다. 이는 온평리의 설촌연대도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신산리, 난산리, 토산리의 설촌연대는 1000년 전으로 짐작하고 있어서 당의 이전과 함께 주민들이 그 쪽에서 온평리로 이주해 와 정착했음을 짐작케도 한다. 김녕리, 수산리, 고성리, 온평리는 설촌연대를 800년 전 쯤으로 잡고 있어서 <삼별초의 난>에 성의 축성작업과 함께 설촌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케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녕리의 경우, 마을에서는 800년 전에 설촌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당설립과 역사를 조천리와 비슷한 연대로 잡으면 설촌을 1500년으로 잡을 수도 있으며, 신산리와 비슷한 연대로 잡으면, 적어도 설촌연대가 1000년은 됐을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아무튼 마을의 설촌연대는 한갓 추정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본고는 본풀이와 역사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이웃 마을의 설촌과 당의 이전 관계를 비교 검토하여 온평리의 설촌연대를 추정하려는 것이다.

## 5. 마 무 리

지금까지 여러가지 추론의 결과 온평리의 설촌연대는 1500년전 사냥을 하며 돌아다니다 비바람을 피해 동굴에서 혈거생활을 하던 수렵, 이동의 토착세력이 온평리의 케(동굴)에서 살며, 동해 금관국(신라시대 가야국의 하나로 본가야를 말하며 제주도와 중개무역을 했다.)의 세 공주와 결혼 농경정착 생활을 하려 하였다. 이러한 증거는 혼인지 동굴유적에서 출토된 무문토기가 철기시대(AD 1~300년)의 가야국, 경상도 해안지역의 토기와 유사하며, 그때가 탐라국 건국 시기라는 것이다. 이때 고량부, 삼신인은 혈거생활을 하다가, 온평리는 토지가 척박하여 서쪽으로 이동, 제주시로 들어 갔다. 이때는 마을이 형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당신을 중심으로 여러 성씨집단이 상·중·하단골을 형성하여 사냥의 풍등을 비는 <당국>을 중심으로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 후, 1000년 전 쯤, 고려와 몽고의 항쟁기에 이웃 해촌을 중심으로 적을 방어하기 위한 환해장성이 축성되면서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고, 세력이 약한 노비와 평민들은 부역과 방어에 동원되었고, 세력이 있는 토호나 양반들은 해변에서 떨어진 곳에 마을을 설촌하게 되었다. 이때는 신산리 보다는 조금 뒤에 열운이라는 마을이 형성된 것이며, 그곳이 <묵은열운이>이다.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750~800년 전 바로 이때에 해당한다. 그들은 토산리 지경에서 또는 신산리, 난산리, 지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왜

### 마을의 설촌과 당본풀이

냐하면 맨 처음 이곳에 <토산한집>을 모시는 당이 설비되었으니까. 그후에도 세화리,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고성리 등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400여 년 전부터는 마을은 몇몇 성씨의 집촌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비로소 마을의 면모를 갖춘 <열운이>가 되었다는 것을 당본풀이와 삼성신화와의 관련, 그리고 많은 가지당들의 이동을 통하여 추적하여 보았다.

아무튼 마을이 설촌되었다고 할 수 있는 연대는 750~800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으며, 삼성신화 시대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당본풀이> 이외에도 신석기시대의 유물이나 지명연기설화 등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는 것이었다. 본고가 <당본풀이>와 <삼성신화>의 관련을 통하여, "본풀이가 민중의 역사"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마을의 당조사에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